주민 애환 깃든 옛 기차역, 문화체험전시관으로 탈바꿈

영산포역사 재현 문화체험전시관 신축 개관식 개최

역사 재현 전시관·어린이 기차체험관 총 2동 신축

191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호남 지역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영산포 번영을 이끌었던 옛 영산포역이 문화체험전시관으로 재탄생했다.

나주시는 8일 옛 영산포역사 신축 현장에서 시민 500여명과 '영산포역사 문화체험전시관 개관식'을 성대히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산포역사 문화체험전시관은 연면적 553.17㎡에 영산포역사 재현 전시관 1동, 어린이 기차체험관 1동 신축 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29억원을 투입, 지난 2020년 9월 착공해 2022년 12월 완공됐다.

전시관 내부에는 영산포 명칭 유래와 역사, 호남 지역 교통·물류의 관문으로 전성기를 구가했던 영산포역 이야기와 옛 사진들, 주민들의 생활상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게시물이 설치됐다.

'매표소', '역무원 복장 체험', '기관사·승객 VR체험', '대합실 홍익 매점', '역무원 실제 물품 전시' 등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소소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체험 콘텐츠도 눈길을 끈다.

전시관 옆 동 어린이 기차 체험관에는 '미니트레인 탑승 체험', '암벽 등반 놀이 시설', '보호자 대기실' 등 아동 전용 놀이 공간으로 꾸며졌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영산포 주민들의 삶과 애환이 깃든 공간이자 호남의 물류·교통 중심지 역할을 했던 옛 영산포역이 이제는 문화·체험·전시 공간을 갖춘 복합센터로 재탄생했다"며 "영산포 관광,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자 나주의 새로운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전시관 건립을 통해 1만4000여평 규모 영산포 철도공원 내 레일 바이크, 야외공연장, 초화원 등 관광자원과 인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와 연계한 영산포 권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불빛 정원, 가로환경 정비, 휴게시설 확충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도입해 영산포 철도공원과 전시관 일대를 사계절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나주=송준표 기자

장성군, '2800여 소상공인 구심점' 연합회 사무실 개소 지원

소상공인 교류 활성화·권익 향상 기대

장성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결속력과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연합회 사무실 개소를 지원했다.

장성군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이 문을 연 곳은 장성읍 보건소 앞 향군회관 1층이다. 장성지역 내 2800여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이 이곳을 중심으로 단합과 상생을 도모하게 된다.

장성군은 민선8기 공약의 일환으로 이번 연합회 사무실 개소에 임대 400만 원, 운영비 600만 원 총 1000만 원을 지원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개소식에는 김한종 장성군수와 이개호 지역구 국회의원, 고재진 장성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주민자치회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연합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장성군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 소상공인의 권익 향상과 교류 활성화를 이루는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올해부터 기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2020년 2월 1일 이전에 개업해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에게 총 사업비 50%,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사업장 시설 개선을 지원해 호응을 얻었다.

장성=김수권 기자

곡성군, '청정전남 으뜸마을 군 추진단 회의' 개최

곡성군이 지난 9일 군청 소통마루에서'청정전남 으뜸마을 공동체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년째 추진되고 있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 마을의 특색을 살리고 공동체의 회복과 생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올해 곡성군은 전체 272개 마을 중 159개 마을이 선정됐다. 각 마을들은 연차적으로 3년 동안 각 500만 원씩 지원 받게 된다.

군에서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청정전남 으뜸마을 군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본 사업의 각 마을별 사업 추진 현황, 홍보 사항 점검, 문제점 및 건의 사항을 논의하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졌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이귀동 부군수는 "올해는 사업내용들이 작년보다 더 많이 다양해졌다. 곡성의 아름다운 청정자원을 관리, 보전하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숙한 주민자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바란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구례군, 제15기 농업인대학 개강식 성료

지역농업 선도할 농업인대학 교육생 55명 대상으로 8개월간 교육

구례군은 교육생, 관계자 등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기 구례군 농업인대학 개강식을 8일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

올해 농업인대학은 지역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 전문교육으로 과학영농 및 농업경영 실천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시설원예 과정" 교육생 55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총 27회, 116시간 교육을 진행한다.

학사일정은 이론 및 실습 교육, 관외 선진지 농가 현장학습, 자치분과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원예 관련 외에도 농업경영에 유익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어 짜임새 있는 강의를 통해 교육생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우리 군은 몇 해 전 친환경농업 도시를 선포했고, 올해는 탄소중립 흙 살리기 정책으로 친환경농업 브랜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농업인대학 교육생이 전문 역량을 향상시켜 우리군 친환경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9년부터 시작한 구례군 농업인대학은 지난해까지 19개 과정 총 65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지역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농업 현장 전문가를 육성해 나가고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담양군, 친환경미생물 확대 공급…친환경농업 강화

담양군이 3월부터 친환경미생물 공급 가격을 리터당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해 공급하기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결정했다.

친환경미생물센터는 2021년 3월부터 멸균배양기 7대 등 배양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며, 공급하는 미생물은 총 7종(광합성균, 고초균2, 유산균, 효모균, 클로렐라, BT균)으로 작물농가는 작물생육 증진과 병해충 방제, 축산농가는 가축 면역력 증강과 악취저감 등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관내 농업인이면 누구나 간단한 가입·신청 절차(무인 주문시스템)를 거쳐 친환경미생물 7종을 1리터 기준 200원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축산 악취저감 미생물은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축사 내 악취유발물질인 암모니아(65%), 황화수소(42%)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축산농가의 위생 축산을 돕고 악취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과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